

2022-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 에세이 참가 신청서

인적 사항				
소 속	법사회대학	학 번		비고
이 름	김**	연락처		

제 목	“나의 블라인드 메이트”
	<p>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수가 4만 4천22명이라지만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가? 나의 경우 대학교에 진학하고 처음 시각장애인을 만나보았다.</p> <p>내가 처음 만난 시각장애인은 우리 학과 전공 교수님이다. 사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기 전 많은 걱정이 앞섰다.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방법과 에티켓을 잘 몰라 교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교수님을 대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교수님께 말 한마디 못 걸어본 채 학기를 마치게 되었다.</p> <p>2022년 2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한 프로그램의 참가자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유퀴즈 출연, ‘김민섭씨를 찾습니다’의 주인공 김민섭 작가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이라는 문구에 호기심이 생겨 모집공고를 클릭했다. 본 프로그램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주관 CBL(Community Based Learning)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CBL 프로젝트란 수업시간에 다루는 ‘교과 내용’과 ‘지역사회와의 경험학습’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교과를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했다.</p> <p>세부 프로그램의 이름은 <블라인드 메이트>로 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 대학생 15명이 매주 함께 모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함을 체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연합 15개 대학(조선대, 순천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 2년 이내 졸업생)으로, 조선대학교 학생도 대상에 포함됐다.</p> <p><블라인드 메이트>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본 프로그램이 내 전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공 역량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2학년 2학기에 처음 사회복지학 복수 전공을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전공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등 사회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함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블라인드 메이트> 참가자 모집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p> <p>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블라인드 메이트>를 통해서라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사회 제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6주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다.</p>

<블라인드 메이트>는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만나 약 2-3시간 정도 활동을 진행했다. 첫째 주에는 광주 무등도서관에 방문하여 점자의 기원과 점자를 쓰고 읽는 법을 배우고, 점자 일람표를 보며 점자책을 읽어보았다. 둘째 주에는 점자키트를 활용해 자신의 이름과 몇 가지 단어를 점자로 작성해 보고 해석해보았다. 셋째 주에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관람하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주에는 전남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해 전남대학교 내 시각장애인 이용공간을 둘러보고 교내에 설치된 점자 블록을 따라 걸어보았다. 다섯째 주에는 광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마지막 여섯째 주에는 1박 2일 여수 워크숍을 진행하여 팀빌딩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참여자 간 친목을 다지고,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사회 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가 속한 조가 꼽은 문제점은 세 가지로 첫째, ‘점자 표기 및 큰 글씨 표기 상품의 부족’, 둘째, ‘배리어프리 영화 공급의 부족’, 셋째,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부재’이다.

<블라인드 메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이 생겨 관련 기사를 찾아보던 중 우리나라 편의점 내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 중 ‘37%’만이 점자 표시가 되어있고, 표기된 상품마저 정확한 제품명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예로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모두 ‘탄산’으로 표기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탄산음료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배리어프리 영화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니, 국내 한 해 상영작 중 ‘1.8%’만이 배리어프리 영화에 해당하며, 실 상영관도 12개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하면서 반다비 체육센터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조차 장애인 스포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각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본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점자 표기 및 큰 글씨 표기 상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와 편의점에 ‘점자 표기판’과 ‘큰 글씨 표기판’을 제공하고, 화장품 판매점에 ‘점자 스티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둘째, 배리어프리 영화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더빙 연합 동아리를 창설하여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 및 배포하고, 배리어프리 영화 자체 상영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 체육대회 진행 시 ‘소리 나는 축구공’을 사용하여 축구 경기를 진행하고,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슐런’과 ‘쇼다운’을 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연합 15개 대학교 중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서의 실천을 단기 목표로 두고 있고, 전체 15개 학교에서의 실천을 장기 목표로 두고 있다.

약 6주간 <블라인드 메이트>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학과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방법과 에티켓을 배우게 되어 과거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데 느꼈던 두려움과 소극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장애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나와 다를 바 없는 또래라는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언니들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중 한 시각장애인 언니는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던 경험으로 말을 조리있게 하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어 이전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짐을 느끼게 되었다. ‘시각장애인 물품 제작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니’, ‘의공학과에 재학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언니’, ‘건축학과에 재학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언니’ 등 여러 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다양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진로방향이 무궁무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블라인드 메이트>를 통해 “인생에서 시각장애인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했던 의문은 “시각장애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친절할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진로 사명감을 스스로 설정하게 되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이 겪는 불편을 이해하고 공감하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스스로 다짐하게 된 말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학도로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약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친절할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홍보 문구에 대한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이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 학습으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에, <블라인드 메이트>는 나의 대학 생활에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행운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위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제출자: __김**__ (인 )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